서 北으로)。

◎ 文化財委 第一分委(四次)

七月 二十八日 總會에 이어서 開催되었는데 案件은 綜合博物館建立推進委員會(假稱)의 設置에 關한 것이었다。委員長을 文化財委會長으로 副委員長을 文化財管理局長으로 하며 委員은 第一分委와 建築家 중에서 若干名을 委囑하고 기타 幹事를 둔다。

◎ 新羅五岳調査團 鷄龍山。智異山。太白山地區 調査

한국일보社가 主管하는 新羅五岳調査事業은 이번 여름에 鷄龍山과 智異山 太白山地區를 調査하기로 되어 七月 三十一日 鄭永鎬氏 一行이 現地로 떠났다。鷄龍山地區에서는 洪思俊 委員과 金永培 扶餘博物館長、李永樂 公州博物館長 等이 合流될 것이며 智異山地區調査에는 秦弘燮 委員 朴敬源 委員과 釜山 東亞大 丁仲煥 敎授 等이 合流될 豫定이다。同調査團은 智異山地區에 이어서 慶北 醴泉과 大乘寺一帶를 調査하고 八月 中旬頃 歸京豫定임(서울發一行은 鄭永鎬 文甲洙 金光洙 金和英 諸氏)。

◎ 慶州 皇吾里 皇南里古墳의 發掘

文化財管理局이 主管하는 今春 皇吾里 皇南里發掘은 七月 下旬에 實施되었는바 積石塚二(三五號 六〇號) 石室墳一(一五一號)基가 調査되어 遺品이 收拾되었다。參加者는 秦弘燮(梨大) 金英夏(慶大) 朴日薰(慶博) 任孝宰、金東賢(서울大)。

◎ 又玄高裕燮先生遺稿總目錄作成

既刊本과 未發表分을 區別하여 그 사이 保存되어오던 又玄遺稿全部의 目錄作成과 分類가 이루어졌다。七月 二十六日부터 八月 四日까지 十日間 黃壽永 金禧庚 鄭明鎬 金和英氏에 의하여 整理되었는바 앞으로 目錄印刷와 保存策이 計劃되고 있다。遺稿中에는 寫眞類도 包含되고 있다。

◎ 浮石寺 三層雙塔 再建竣功

數年前 浮石寺東方 寺址에서 移動된 同塔材는 七月 下旬부터 同寺 梵鐘樓앞 左右에 再建되어 八月 十一日에 完成되었는바 西塔에는 舍利가 奉安되었다。

이 工事는 黃壽永氏 監督 孫龍文氏 施工으로서 經費는 寺側負擔。

◎ 返還文化財特別展示會 終了

七月 一日부터 國立博物館에서 開催 中이던 日本政府가 返還한 文化財의 特別展示는 七月 三十一日에 終了되었다。

◎ 春城 支石墓 發掘調査

國立博物館에서는 江原道 春城郡 新北面 샘밭에 所在한 支石墓를 發掘調査하게 되어 八月 三日 尹武炳 金正基 兩氏가 現地로 出發했다。이 發掘은 八月 四日부터 中旬에 걸쳐 施行될 것이다。

◎ 扶安 靑磁窯址 發掘調査

國立博物館에서는 八月 中旬부터 約 二週日에 걸쳐 全羅北道 扶安郡 保安面 柳川里에 있는 象嵌靑磁盛期의 窯址를 發掘調査한다。이 發掘을 爲하여 崔淳雨 鄭良謨 李准求 俞門龍氏 等이 八月 十四日頃 現地로 떠났다。

◎ 同人 申榮勳氏 코펜하—겐向發

同人 申榮勳氏는 八月 三日 下午 三時半 美國 西北航空便으로 渡歐出發했다。同氏는 公報部가 코펜하—겐 丁抹國立博物館 民俗部에 建立展示되는 韓國書齋建物의 組立과 同室의 展示施設을 指導하기 위하여 公報部가 派遣한 것이며 約 三個月間 歐羅巴에 滯在할 豫定이다。

四佛山 四佛岩과 妙寂庵磨崖如來坐像

——新羅五岳綜合學術調査記第七——

秦 弘 燮

新羅五岳調査 太白山地區 第三次調査는 大乘寺를 中心으로 行하여졌던바 大乘寺의 屬庵인 妙寂庵、潤筆庵、그리고 金龍寺가 그 對象地였

다。 金龍寺에는 大端한 遺物이 없었으나 大乘寺에는 木刻佛幀(本號 文甲洙先生 論文 參照)이 傳해져서 注目을 끌었고 山上에는 四佛岩이 있고 妙寂庵 밑에는 磨崖如來坐像이 있어 모두 調査員들을 놀라게 하였다。 木刻佛幀에 對하여는 文甲洙先生이 오랫동안 幀畫에 對하여 調査해온 바 있어 別稿가 마련되었기에 여기서는 四佛岩과 磨崖如來에 對한 調査 結果를 紹介하고자 한다。

四佛山 四佛岩

三國遺事 卷三 四佛山條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竹嶺東百許里 有山屹然高峙 眞平王九年甲申 忽有一大石 四面方丈彫四方如來 皆以紅紗護之 自天墜其山頂 王聞之 命駕瞻敬 遂創寺 當側額曰 大乘寺 請比丘亡名誦蓮經者主寺 洒掃供石香火不廢 號曰亦德山或曰四佛山 比丘卒 既葬 塚上生蓮

「自天墜其山頂」만 不問에 붙인다면 「忽有一大石四面方丈彫四方如來」가 現狀과 符合된다。 이 四佛岩의 位置는 大乘寺에서 山上으로 徒步로 約二十分距離에 있고 山上에 오르면 眼下에 展開되는 山谷이 勝景을 이루고 潤筆庵 妙寂庵이 내려다 보인다。 여기 一大岩盤이 솟았는데 絕壁을 이룬 上面은 一邊 六—八m의 넓고 扁平한 不定形三角形을 이룬 中央에 高 約 二。九五m 一邊約 一·五m 內外의 別石의 方柱가 있어 첩경 「自天墜」라고 보기 쉬운 形狀이다。 方柱의 各面은 正確히 東西南北을 가리키고 있으며 四面에 모두 佛像 一軀씩이 彫刻되었다。 山上에 位置하여 磨滅이 甚했던 탓인지 佛像의 輪廓만이 남아 있을 뿐 彫鏤의 細部는 알 수 없었으나 모두 如來像으로 推定되었으며 東·西 兩面은 坐像으로 南·北兩面은 立像이었다。 그 中 東面의 坐像이 가장 狀態가 좋아서 肉髻가 있는 頭部가 뚜렷하고 兩耳中 右側 귀가 어깨위까지 길게 늘어지고 있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비록 磨損이 甚하기는 하나 位置를 보고 奇妙한 岩石의 形態를 볼 때 一種의 神秘感을 느끼게 하였다。 岩下에는 四佛庵이라는 庵宇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어졌다。 一然禪師는 「眞平王 九年 甲申」의 일로 記錄하였으나 眞平王 九年(西紀五八七年)이 甲申年이 아니고 丁未年이라는 差誤가 있고 甲申年을 爲主로 한다면 眞平王 四十六年(西紀六二四年)이 되나 如何튼 이들 彫像의 年代를 이 때까지 올려 볼 수 있을지 疑問이다。

妙寂庵磨崖如來坐像

大乘寺에서 妙寂庵을 가자면 東向한 妙寂庵 바로 밑 山路 右便에 屛風같은 岩石이 南向하여 솟았고 이 岩石은 거의 直角으로 꺾여져서 幅 約 五·四m의 東向한 絕壁을 이루었는데 如來像은 이 東面한 岩面에 彫刻되었다。 岩石은 위가 若干 앞으로 내밀려서 비 바람을 避했음인지 刻線이 잘 남아 있다。

기름한 面相에 肉髻가 比較的 큰데 兩側으로 三枝의 草花紋이 뿔같이 뻐치고 있음은 異例的이었다。 두 귀는 길직하고 거의 감다싶이 한 兩眼은 細長하고 두툼한 입술은 매우 크다。 三道는 平行으로 表現되지 않고 二條의 陰刻線이 군 살이 쳐져 있는 듯이 보이는 點도 通式을 벗어났다고 하겠다。 法衣는 通肩으로 胸前에 裙衣의 結帶가 있고 끈이 밑으로 처지고 있다。 衣文은 어깨에서 내려와 두 팔을 거쳐 무릎밑까지 내렸는데 모두 陰刻線으로 表示되었다。 左手는 어깨까지 들고 엄지와 둘째 손을 꾸부려서 맞대고 다시 약지를 꼬부렸고 右手는 팔을 水平으로 잡고 五指를 若干씩 꼬부리고 있다。 結跏趺坐한 무릎 위에는 두 발이 뚜렷이 나타나있고 무릎 밑에는 線刻으로 七葉蓮瓣이 큼직하다。 後光은 頭光 身光을 區分하여 二條의 平行線으로 되었으며 頭光만은 線內를 同心圓形으로 비스듬이 파냈고 線外 周緣에 火焰이 淺刻되었다。 岩石 上面에는 扁平한 方形板石(幅 一·四四m)이 얹혔는데 앞으로 六五cm를 내밀게 하여 高麗石佛像 頭上에 蓋石을 얹는 樣式과 通한다고 하겠다。

보기드문 大作으로 保存狀態도 매우 良好하여 蓮座部分에 岩石의 龜裂이 있기는 하나 刻線이 鮮明하게 남아 있다。面相의 彫刻手法이 特異하고 頭上의 草花는 보기드문 手法이었다。 그러나 全體의 均衡이 좋은 雄作이라 하겠으니 앞으로 格別한 保存策이 必要할 것이다。

實測値

坐高 約 六m、肩幅 二·二m、膝幅 三·一m 蓮花座 幅 三·七m 同高 八六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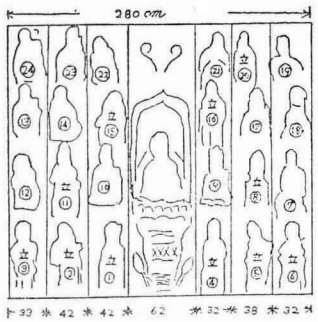
大乘寺 木刻幀

——新羅五岳綜合學術調査記 第七——

文 甲 洙

新羅五岳調査團에 隨行하던次 去 八月 十二日 大乘寺에서 木刻佛幀을 調査할 機會가 있었기에 그 槪要를 紹介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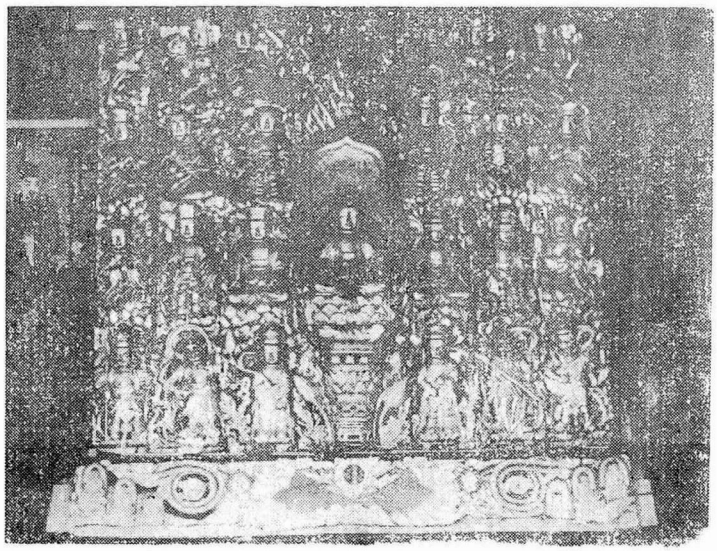
大乘寺는 慶北 聞慶郡 山城面 大乘里 四佛山에 位置하고 있으며 그 寺名이 三國遺事①에 실려 있는 由緖 깊은 寺刹인데 數年前의 火災로 法堂과 그 外 附屬建物이 燒失되어 荒廢되었으나 現在 復舊工事가 한창 進行中이다。



寺內에 殘存하는 몇 가지 遺物 中 木刻佛幀은 그 彫成이 李朝後期에 屬하며 銘文은 없다고 하나 特記할만한 大作이었다。

現在 周知된 木刻佛幀은 大乘寺를 비롯하여 慶北 醴泉 龍門寺, 尙州 南長寺, 全北 實相寺 藥水庵 等에 그 類例를 찾을 수 있겠다。

本佛幀은 本是 榮州 浮石寺 無量壽殿內의 後佛幀으로서 彫成된 것이나 距今 百餘年前에 本寺 大雄殿 後佛幀으로 移搬되어 奉安되다가 十餘年前의 火災때 災殃을 謀免하여 大雄殿에서 現在의 極樂殿으로 移安된 것으로 이러한 經緯는 兩寺間에 그 占有를 둘러싼 紛爭을 자아내어 彼此 數次의 書狀이 오고간 끝에 結局은 光緖二年 丙子(一八七六 A.D)三月 完議를 보아 大乘寺가 二百五拾兩을 浮石寺 祖師殿 補修費로 보냄으로서 佛幀은 大乘寺 所有로 歸屬된 것이다。(附錄한 關係文書參照)



後佛幀하면 佛像의 後面을 裝飾하는 壯嚴具로서 흔히 紙 혹은 絹入彩에 그림(繪畵)으로 나타냄이 通例이다。本佛幀은 後佛幀이라는 點에서 一面 幀畵의 性格을 띄고 있으나 그 材料가 나무(木)이고 그림 아닌 彫刻이니 嚴格히 佛畵라기 보다는 彫刻品으로서 考察 혹은 說明되어야 할 點으로 보아 通例의 佛幀과는 色다른 後佛幀이라고 하겠다。

全面에 金箔이 燦然한 全高 二五六cm 全幅 一八〇cm 厚 一五—三〇cm의 高肉彫인 中心部는 上下로 긴 板木 七枚로 짜여져 있고 다시 別材로 臺部 蓋部等 總十一枚로 構成되어 있으나 中心部만 남기고 分解된채 復